

##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조명디자인 사례

박의정 (대구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 1 서론

공공디자인은 최근 한국 디자인계의 중심 화두라 할 수 있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인 현상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공공디자인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단체와 모임들의 창립이 최근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에는 '한국공공디자인학회'가 창립되었고, 국회에 '공공디자인포럼'이 만들어졌다. 2007년에도 '공공디자인협회'가 만들어져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들은 공공디자인 담론의 생산과 실천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sup>1)</sup> 공공디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학회나 협회에서 공공디자인을 주요한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역시 공공디자인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하였음을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 1) 2006년 8월 한국공공디자인학회 하계학술대회의 주제는 "공·공공·공공디자인"이었다. 이 행사에서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특별강의와 함께 몇 편의 논문과 사례들이 발표되었다.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은 현재까지 9차례의 공공디자인을 매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관련 전시와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 2) 2007년 6월, 한국실내디자인협회와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의 주제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 대응하는 지역 사회 디자이너로서의 공공적 역할"이었다. 그보다 앞서 2007년 5월에 개최

그 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디자인관련 조식을 정비하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2005년 8월 문화관광부내 문화정책국 소속으로 '공간문화과'가 신설되었는데, 이 기관에서는 국가의 공공디자인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관장하고 있다. 디자인진흥원에도 디자인지원팀 내에 '공공디자인파트'라는 관련 조직이 마련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시장 직속으로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만들고, 시정에 공공디자인을 주요한 대상이자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sup>3)</sup> 일부 국회의원들의 관심 속에 새로운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동시에 기존 '산업디자인진흥법'의 개정 움직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디자인은 사실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의 실질적인 계기로 작동하였다.

공공디자인에 대한 현재의 관심이 디자인계 내부에 머물고 있지 않은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된 한국조명디자인협회의 세미나 주제는 "공공, 빛, 도시문화"였다. 이러한 주제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 디자인의 공공성, 혹은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이러한 흐름은 현재 다른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고 있다.

## 2. 디자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디자인 분야 공약]  
 “디자인으로 여는 매력적인 한국 - 〈Designed in Korea〉”

### (1) 현황 및 과제

- 창조산업의 기반으로 디자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 디자인의 역량은 선진국의 약 80[%]수준, 특히 공공디자인분야 낙후
- 디자인산업의 전략적 진흥을 통한 국가이미지 (Korea Branding)구축과 문화 정체성 확립 필요

### (2) 정책대안

- 국가디자인위원회 (NDC National Design Council) 설치·운영
  - 집중과 선택을 통한 ‘디자인 통합주의’ 추구
  - 산자부, 문화부, 건교부, 행자부 등 분산된 디자인업무 조정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효율적인 정책·예산운용 추진
-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운동을 통해 ‘창조적 삶의 공간 조성’과 ‘쾌적한 도시’, ‘정체성 있는 매력적인 대한민국’ 구현
- 디자인교육 강화로 스타디자이너 발굴 및 세계 시장진출 지원
  - 디자인 조기교육 및 특성화교육(마이스터고 교 등)
  - 디자인 전문인력 집중양성 및 특성화대학 지원
  -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지식 기반 구축
  - 국가 R&D예산 중 디자인 R&D예산 비율 확대

## 3. 공공디자인 사례

### ■ 서울역 버스정류장, 네트워크로 도시 감성을 깨우다 (중앙일보)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클리닉서울에는 6,100여개의 버스정류장, 290여 개의 지하철 역사가 도시 전역에 그물망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동수단의 불합리한 배치로 인해 이용자들이 혼잡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장소로 열차·지하철·버스·택시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이 만나는 서울역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림 1. 서울역 환승센터의 승차대 이미지(주간)



그림 2. 영상정보가 나타난 이미지(야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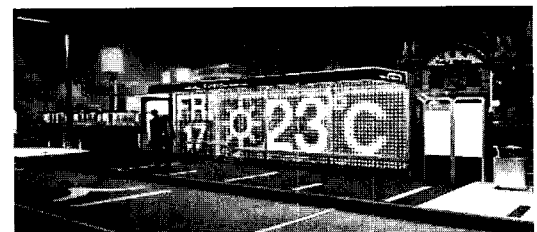


그림 3. 요일·날짜 등 문자정보가 표시된 이미지(야간2)

서울시는 서울역 주변의 상습 정체 해소와 빠른 환승을 위해 여러 환승시설을 통합해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종합환승센터를 조성해 25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여 개의 승차대 중 첨단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12개의 미디어 승차대가 세워집니다. 이 승차대는 통합 환승서비스 기능을 혁신했고, 장소 자체가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 되는 '장소기반 미디어(Locative Media)' 기술을 도입해 예술적 표현을 가능케 했습니다.

서울은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에게 '정보기술(IT)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깊은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 전동차 속에서 휴대전화를 장애 없이 이용하고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 방송을 시청하는 모습은 지구촌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풍경입니다. 민간기업인 현대카드(주)가 디자인을 한 이 미디어 승차대와 주변 가로시설물로 인해 서울은 또 한번 창의적인 IT도시임을 과시하게 됐습니다. 현대카드의 의뢰로 디자이너 채정우가 설계한 이 승차대들은 지붕을 포함한 모든 면이 투명유리로 돼 있어 낮에는 주변 경관이 투시돼 보입니다. 유리 안에 전류가 흐르는 얇고 투명한 막이 있고 이 막에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돼 있어 야간에는 수많은 작은 불빛이 빛나는 영상스크린으로 변합니다. 미디어 승차대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송출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쌍방향 매체입니다. 중앙관제실을 통해 뉴스·날씨 등 일상의 공공정보는 물론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까지 유리면에 띄워 국가행사나 도시축제 시기에 이벤트 요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승차대에 장착된 센서가 사람의 동작, 차량의 움직임, 기상 상태 등에 반응해 도시와 시민, 시민과 승차대 간의 상호소통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승차대로 접근하면 영상이 변화하며, 나아가 웹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직접 콘텐츠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민간기업, 전문디자이너 간의 긴밀한 협의와 시민들의 참여로 완성된 참

여디자인의 좋은 사례입니다.

도시의 랜드마크는 반드시 큰 규모의 건축물이거나 권위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이 즐겁게 다가가고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그것이 랜드마크로 발전합니다. 창조적인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 교감하고 반응하는 도시, 시민의 감성을 폭넓게 일깨우는 도시입니다. 이야기를 생산하고 시민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이 미디어 정류장은 시민의 창의성을 자극하는 랜드마크입니다.

### ■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서울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2008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신청제품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2월 23일 우수공공디자인을 선정·발표했다.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장려하고, 디자인서울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디자인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여 서울 도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우수 디자인을 선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디자인 관련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많은 우수디자인을 선발, 지원하여 국내 공공디자인의 기반을 확실히 구축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제품 심사는 서울시가 마련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대한 준수여부를 비롯해 기능성, 경제성, 지속가능성, 장소성, 환경친화성, 창의성,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물심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인증제 심사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오인욱 심사위원장(경원대학교 교수)은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어 앞으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가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디자인계의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자인 향상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시장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의 역할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276점(공공시설물 260, 공공시각매체 16)에 대한 심사결과 10점(벤치 4, 벤스 1, 휴지통 1, 방음벽 1, 조명 3)이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인증 제품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도 적합하고 도시에 어울리는 디자인의 미려한 마감과 무광도색, 친환경 소재 등 서울 도시공간에 적합하고 현대적 디자인 감각이 우수한 제품에 인증의 영광이 주어졌다.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선정된 업체(디자이너)에게는 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며, 우수공공디자인 제품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서 시민과 관련업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제품에 대하여 2009년 10월 9일부터 29일까지 잠실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서울디자인올림픽 2009'의 행사장에 인증제품을 전시함으로써 시민들과 관련업체 및 디자이너에게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한 디자인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산하기관, 25개 자치구 담당자에게 우수공공디자인 연감을 제작·배포하여 우수 공공디자인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2009년에도 4월과 10월 우수공공디자인 선정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우수 공공디자인 제품 및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 장려하여 시민에게는 좋은 디자인 환경을 제공하고 디자이너 및 동종 업계 간 경쟁체제 구축을 통한 서울의 공공디자인 수준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디자인서울을 더욱 가속화 시켜 나갈 것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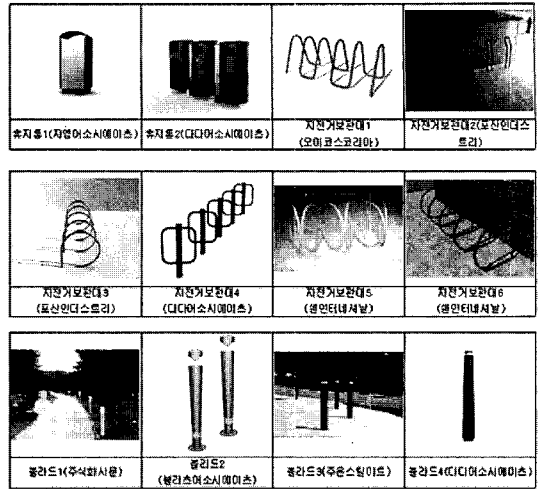


그림 4. 2008 서울시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우수공공디자인 수상작

## 4. 조명디자인에 대한 규제

### ■ 건축물 조명에 대한 규제(조선일보)

서울시내 건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이 규제된다. 건축물 경관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나 빔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건축물의 벽면 전체에 다양한 색상·형태·밝기 등을 조정하는 조명으로,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또는 '미디어 월(Media Wall)이라고 한다. 현재 대우빌딩,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금호아시아나 본관 등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부쩍 늘어나는 건축물 경관조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경관조명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술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하고, 작품성이 없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조명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설치되는 경관조명은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약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지나치게 밝거나 원색 계열의 색상은 금지된다. 또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시각 장애를 주지 않도록 표면 휘도(輝度, 광원의 단위 면적당 밝기의 정도)는 최대 25(cd)(칸델라,

1[m]에 양초 25개를 켜놓은 밝기) 이내로 제한된다. 점등 시간은 일몰 후 30분 뒤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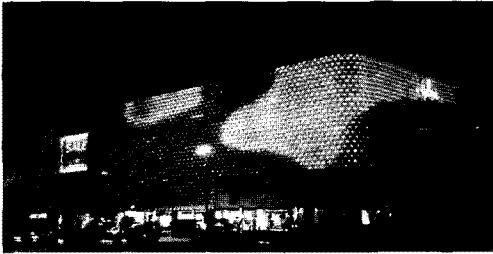


그림 5. 갤러리아 백화점 압구정점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경관조명 설치가 금지된다. 절대 금지지역은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 보존지구, 국가 지정문화재 반경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 반경 50[m] 이내이다. 조건부 금지구역은 경복궁 주변의 문화재·유물이 많은 지역과 독립문, 서울성곽 내부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문화재를 향하는 건물 벽면에 경관조명이 금지된다.

다만 동대문·명동 등 상권이 발달하고 관광객들이 많은 찾는 지역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 김성보 공공디자인담당관은 “기존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건축주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 라인에 맞추도록 권고하기로 했다”며, “경관조명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고 과도한 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를 방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겠다”며, 말했다.

### ■ 전자현수막의 가능성

옥외광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안은 법령 체계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개선 및 허가체계 간소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1962년 제정

이후 전부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림 6.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전자현수막

LED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LED조명을 응용한 옥외광고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LED보급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 LED를 이용한 전자현수막을 시범 설치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불법”이라며 “지주물에는 전기시설을 하지 못 한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네온·전광·점멸 등 전기를 이용해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교통수단에 전기 발광 간판도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7월에 제출한 개정안은 법령 개정으로 LED조명 등과 관계된 문제는 시행령에 담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LED가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의 아이콘과 같은 것으로 시행령 등에 LED를 응용한 옥외 간판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LED협회 관계자는 “최근 행안부로부터 LED 현수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협회의 건의안이 개정안에 반영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회신을 받았다”면서 “개정안 통과, 시행되면 지자체 공공디자인 등과 맞물려 옥외광고 시장이 새 수요처로 부각돼 LED 조명

보급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 5. 조형디자인 사례

### 5.1 감성디자인 서울을 위한 '미디어 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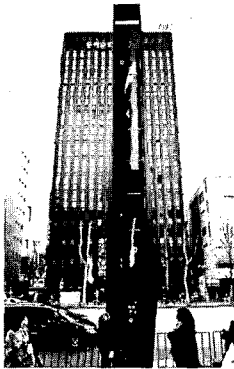


그림 7. 미디어폴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거리 조성, 안내 표지판 개선 등 도시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는 '07년 '세계디자인수도'로 서울시가 선정된 일을 시작으로 '08년 세계최초로 '디자인올림픽' 개최와 '공공디자인 인증제' 실시 등 시의 남다른 노력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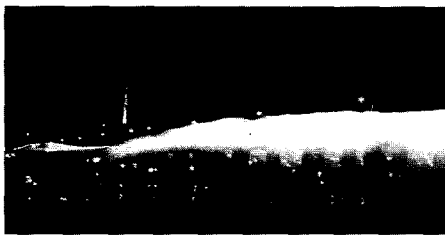


그림 8. 달빛무지개분수

또한 'U-Street'(유비쿼터스 거리)로 조성된 강남대로에는 30[m] 간격으로 22개의 '미디어폴'(media pole)을 설치했다. 미디어폴은 액정화면(LCD)과 발

광다이오드(LED)로 꾸며져 있으며 아랫부분에는 시민들이 인터넷 검색·사진과 동영상촬영·메일송수신·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가 마련돼 있다. 이와 함께 시설물은 가로등과 교통안내표지판 기능과 미디어 아트 작품의 역할도 하게 된다.

### 5.2 기네스 북에 오른 '달빛무지개분수'

2009년 4월 27일 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한강 반포대교에 설치된 '달빛무지개 분수'는 기네스북에도 오른 세계 최장 교량분수이다. 기능으로는 낮에는 분수에 떨어지는 물결의 모양에 따라 휘날리는 버들가지 모양 등 100여 가지의 형상을 연출하고, 밤에는 음악과 200개 조명을 통해 형형색색의 환상적인 서울야경을 보여 준다.

또한, 비만 오면 잠기던 반포대교 아래쪽 잠수교를 아름다운 폭포 다리로 변화시키고 시민들이 한강을 좀 더 가까이에서 편하게 즐기며 조망할 수 있는 '걷고싶은 다리'로 조성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통합 디자인 및 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모두 30곳의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 5.3 SUN-LIGHT(LED평면발광)을 이용한 도로, 교통표지판, 간판(썬이노텍)

도로, 교통표지판, 간판, SIGN, POP, 인테리어, 경관조명 등 LED(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문으로 연구, 개발, 제조하는 '썬이노텍'(대표 이상렬)이 [2009년 상반기 유망 브랜드대상] 제조 분야에 선정되며 그 특별함을 입증 받았다.

2001년에 발광 다이오드(LED)회사로 설립된 썬이노텍(www.suninnotech.com)은 발광 다이오드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장치를 제0364180호로 실용신

안등록, LED 평면 발광 조명용 도로·교통안전표지판을 제10-0719913호로 특허등록, SMD LED 평면 발광 교통신호등 제2008-0072458호 특허출원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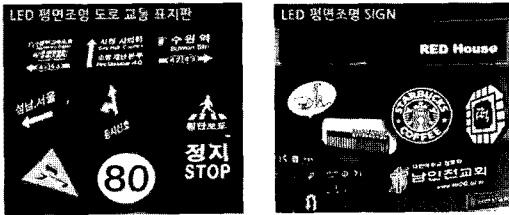


그림 9. SUN-LIGHT(LED평면발광)을 이용한 도로, 교통표지판, 간판

썬이노텍은 LED 성능을 인정받아 교양구 통일로 주변 지주간판 35개소 150여개 간판을 LED 평면조명방식으로 국내 최초로 정비하였고, 인천광역시 동구청, 전주시청, 평택 등에 LED 간판을 공급하였고, 진주시청 간판정비 사업에서 디자인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영덕-오산 광역도로, 311번 국도, 용인구성지구내에 LED 평면 발광 조명용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경기도청 앞 사거리 LED 평면조명용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 등 많은 실적을 쌓아가는 등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는 회사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 교통사고예방,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등은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지만 대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썬이노텍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특허 등록된 LED 평면 발광 도로, 교통표지판은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 각국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LED 평면 발광 도로, 교통표지판 문화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주역이 되려는 심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다.

## 5.4 압구정로 버스정류장 쉼터

서울 강남구가 도시 공공디자인의 새로운 실험 현장이 되고 있다. 강남구는 압구정로 버스정류장 쉼터를 첨단 디지털미디어로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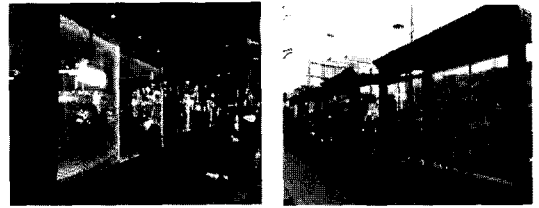


그림 10. 압구정로 버스정류장 쉼터

'변하는 단어들(Changing Words)'이라는 이름의 작품은 LED조명과 LED패널을 이용해 다채로운 조명과 다양한 문자 및 영상을 제공하는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 효과를 제공한다. 작품의 텍스트는 시간을 두고 교체되며, 글로벌 위기를 이기는 희망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번 작품은 '예술'이라는 키워드로 도시 각 지역에 개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시갤러리 프로젝트'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다. 도심 속 낡은 이미지의 버스 쉼터에 디지털미디어 작품을 설치해 대한민국 패션 특구 1호인 압구정로의 특성을 살렸다

이 작품은 컬러풀한 조명효과와 함께 시간차를 두고 글자가 교체되며 희망 메시지를 전달한다.

## 5.5 광주시, LED조명에 음악 흐르는 버스승강장

2009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장과 시청 주변에 태양광 발전을 통한 LED조명과 음악이 흐르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된다.

광주시는 2009년 10월 열리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를 맞아 광주시의 광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5월

하순부터 1억6천만원을 투입해 광소재 부품을 활용한 LED승강장 10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승강장은 최근 광주시가 개발한 버스 쉼터 표준디자인에, LED조명과 음악방송의 전원으로 투명 전지판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도입하게 돼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절감시설로 꾸며진다.

이에 따라 에너지를 절감하고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ED조명은 백색 면조명과 다양한 컬러 변환이 가능한 점조명을 적용해 다양한 색채의 승강장 분위기를 표출, 관광객과 일반시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광산업에 대한 자연스런 관심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쉼터 내부에 설치된 인체감응 센서를 통해 자동 조절되는 음악방송 장치는 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이다.

기존의 딱딱하고 야간에는 어두운 이미지의 버스승강장을 새로운 디자인과 환경 친화적인 LED조명으로 꾸며 문화 중심도시와 광산업 도시의 특성을 살리게 될 것이며, 시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광주의 아름답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광주시가 추진하는 2009광주세계광엑스포 성공 개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5.6 '2009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현상설계 공모'- 폴사인(택시승차장 표시)

택시승차대·폴사인(택시승차장 표시)·파고라(지역 주민 쉼터 내 원두막·정자)의 '서울 표준형 디자인'이 현상설계를 통해 결정됐다.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2009 공공시설물 표준형 디자인 현상설계 공모'를 한 결과, 테트라 건축사사무소와 (주)위코 공간환경의 공동 응모작이 최우수작으로 뽑힌 것이다. 서울시는 이 작품이 '비우고(airy), 통합하고(integrated), 더불어 하고(collaborative),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이란 디자인서울 4대 기본전략에 부합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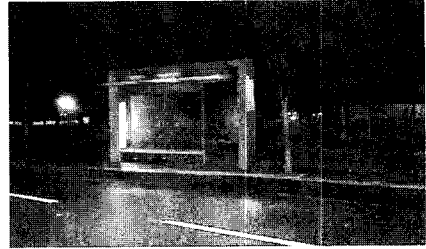


그림 11. 폴사인(택시승차장 표시)

서울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폴사인과 보행조명시설 등에 대해서도 디자인 설계공모를 통해 12점의 표준형·일반형 디자인을 선정했고, 이번 달 중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및 시설물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 5.7 '대구' 조명으로 밤을 디자인한다

대구시 중구청은 시 주요 문화유산인 사적 제290호 계산성당과 등록문화재 5호인 대구사범학교(현 경북사대부설고교) 본관·강당 건물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했다.

대구시 중구청의 문화재 조명 설치에 문화재 야간경관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도심에 위치한 문화재에 야간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광객 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대구의학전문대학교를 비롯해 구 도립대구 병원에 조명이 설치됐으며 앞으로 동산병원선교사주택 등 7곳이 더 계획돼 있다.

이번에 완료한 계산성당과 대구사범학교본관·강당 조명공사는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0개의 조명등과 CDM램프 투광시설이 설치됐다.

문화재에 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문화유산에 대



한 인식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국내의 관광객을 위한 역사문화탐방코스 등 관광자원화로 문화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구청이 중구의 문화재 주변에 조명을 설치해 불을 밝히고 있는 사업은 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아주 고무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유산인 계산성당(사적 제290호)과 대구사범학교(등록문화재 5호), 대구의학전문학교, 옛 도립대구병원에도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그동안 보존을 위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어둠 속에 방치했던 문화재들을 밤의 풍경으로 되살린 좋은 사례이다.

### 5.8 한강다리 아래 '서울색' 활짝 마포대교 남단 서울색공원 개방

서울 마포대교 남단 교량하부에 서울색을 적용시킨 '서울색 공원(Seoul Color Park)'이 조성됐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억6960만원을 들여 교량하부 공간 이미지 개선, 시민고객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6월 준공,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울색공원은 한강공원 특화사업과 함께 조성돼 그동안 황량하고 어두웠던 이미지의 교량하부가 밝고 쾌적한 이미지로 개선돼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상적 디자인 체험으로 자연스러운 예술감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색공원은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서울색 조형물, 서울색 바코드 그래픽 및 벤치 등이 설치돼 있어 시민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휴게공간으로 손색이 없도록 조성되었고 향후 한강특화지구와 함께 한강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우러져 그 가치를 더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서울의 대표적인 자연·인공·인문·환경색을 추출, 서울시민의 정서를 담아 '서울상징색'인 단청빨간색과 함께 '서울대표색10', '서울

지역색50', '서울현상색250', '서울권장색600'을 선정, 발표하고 그동안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적용,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사용해오고 있다.

### 5.9 딱딱한 서울 부드럽게 만들기 - 걷고 싶은 거리·문화의 도시로 재구성

'I design.'(나는 디자인한다)

올해 10월 열릴 서울디자인올림픽(SDO)의 모토는 오늘 서울의 정체성을 선명히 드러낸다. 서울시가 만약 살아 숨쉬는 사람이라면, 지금 그 영혼을 지배하는 좌우명은 'I design'일 테니까. 2006년 시작된 '디자인서울' 사업은 서울을 건강한 생태도시, 품격 있는 문화도시, 역동적인 첨단도시, 지식기반의 세계도시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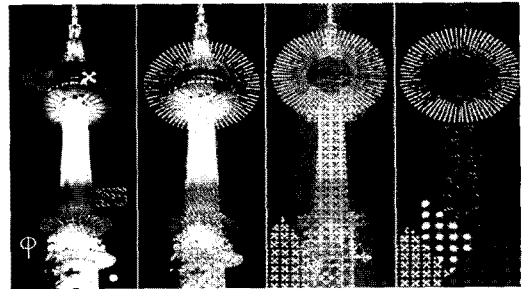


그림 12. 여름밤 찍은 남산 N서울타워의 야경 사진을 서울정보문양으로 바꿔가는 과정. 사진 각 부분을 서울색으로 단순화하고 구성요소·장소 성격·형성시 기·가치에 따라 기호 패턴을 입혔다. / 서울시 제공 디자인

서울의 진정한 의미는 물질적 성장을 추구하며 역사·전통과 단절됐던 하드시티(hard city) 서울을 '사람과 문화·예술' 위주의 소프트 시티(soft city)로 재탄생시키는 데 있다.

자동차 중심으로 스피드에 중독된 채 에너지를 마구 소비하던 도시를 보행자·자전거 중심의 친환경적

인 도시로 바꿔놓는 것, 엄숙하게 바라만 봐야 했던 도시를 참여할 수 있는 즐거운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움직이는 키워드는 '소프트'(SOFT)다.

### ■ 경관은 개선, 매력은 흥보

비우고(airy) 통합하며(integrated), 더불어 하고(collaborativ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서울.

디자인서울의 4가지 전략이다. "쾌적하고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게 좀 비우자. 대신 기능·목적·디자인을 통합해 깔끔하게 만들면 된다. 전문가나 행정기관뿐 아니라 시민도 더불어 참여해 서울이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도록 자연·인간에 친화적인 디자인을 해보자." 쉽게 풀이하면 이런 말인데, 이 얘기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규정은 빈틈이 없다.

그간 서울시는 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공공시설물의 디자인·배치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했다. 공공건축물·옥외광고물·시설안내표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화해 왔고, 환경미화원의 근무복과 환경위생차량도 통일됐다. 가판대와 공중전화부스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고 '흥한 광고탑 세우지 마라, 난잡한 간판 글씨 바꿔라'는 식으로 잔소리만 하는 게 디자인서울은 아니다. 서울의 매력 알리기에 디자인이 활용된다. 서울성곽·보신각·인사동길·마로니에공원·정동길 같은 서울 명소 50곳의 대표적 풍경을 서울색과 기호 패턴을 이용해 아름답게 표현한 '서울정보문양'을 최근 공개한 것도 그런 사례이다. 명소들의 특색을 잡아 그린 아이콘과 함께 지도·기본정보를 담은 종이사진틀 '서울의 창'도 나왔다. 어떤 장소의 아이콘을 보고 마음에 들면 실제로 찾아가 사진을 찍고 끼워둘 수 있게 만든 것이다.

### ■ 걸을 맛나게 하는 거리 美學

'디자인서울거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선봉 격이다. 제멋대로 늘어 놓아졌던 거리의 공공시설물·간판·보도블록·조명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디자인해 거리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업인데, 내년까지 시내 30개 거리가 디자인서울거리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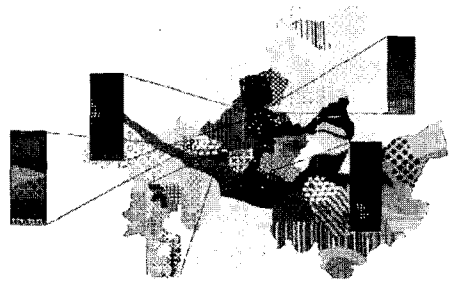


그림 13. 서울 디자인거리

### 참 고 문 헌

- (1) 오창섭,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디자인", 디자인학회 연구논문지, 제 73호 Vol.20 no.5, p167, 2006.
- (2) 박찬숙, "디자인으로 여는 매력적인 한국: Designed in Korea", 건축과사회 통권 제 11호, pp.20~23, 2008.

### ◇ 저 자 소 개 ◇



#### 박의정

계명대학교 응용미술학과. 홍익대석사 실내디자인전공. 경북대박사 건축계획전공. 현재 공공디자인학회 경북지회장. 대구예술대학교 실내디자인전공 교수.